

# 韓國水產業의 當面課題와 進路

—資源保全과 增·養殖漁業문제를 중심으로—

吳 浩 成(首席研究員)

- I. 序論
- Ⅰ. 水產業의 現況과 問題點
- Ⅱ. 水產業의 展望과 進路
- Ⅲ. 問題解決을 위한 몇가지 對策
- V. 結論

## I. 序 論

우리나라 水產業은 세 차례에 걸친 經濟開發 5 個年 計劃을 遂行하는 동안 急速한 伸張을 이룩, 1977年 現在 生産面에서는 世界 第7位, 水產物 輸出面에서는 世界 第4位の 水產強國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外形의인 發展에도 불구하고 漁家所得은 都市勤勞者 家計所得과 農家所得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고 漁業經營에는 客主制度, 못가림과 같은 實物分配등 前近代的 要素가 뿌리깊이 남아 있다. 沿近海의 一部 漁種은 고갈되었으며 漁家所得推計도 科學的으로 되어있지 않는 등 經濟施策의 不毛地처럼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왔다.

本 論考의 目的은 우리나라 水產業의 基本構造를 밝히고 當面問題를 提起함으로서 앞으로의 水產政策에 좀더 積極的인 施策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魚資源은 資源經濟學에서 말하는 走移性資源(fugitive resources)의 대표적 例이다. 산짐승이나 새등과 같이 走移性 自然資源은 그 所有權이 매우 不確實하여 資源을 직접 자기 손에 넣어야만 비로써 自己의 所有가 된다. 따라서 走移性資源의 궁극적인 所有權은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이 잡는 사람에게 歸屬되므로 沿近海漁民들로서는 魚資源의 再生産能力이 크게 파괴되는 것을 아랑곳없이 自己 혼자만의 利益을 위하여 무절제한 남획을 하려는 經濟的 誘因을 갖고 있다. 走移性資源은 일정량 이상을 포획하면 번식이 어려워져 魚資源의 數量을 원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經濟的 危險水準(critical zone)(註1)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個人的인 所有權이 確實한 資源은 원금까지 잘라먹는 또는 種子까지 먹어버리는 枯渴行爲를 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처럼 연근해 漁場의 魚資源을 무절제하게 競爭的으로 포획하면 魚資源은 危險水準을 넘어 고갈상태에 이르고 漁民들은 生計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작은 고기까지 잡아먹고 같은량의 고기를 잡기위해 더욱 먼 바다로 나갈 수 밖에 없다. 漁夫들이 더 먼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가기 위해서는 漁船을 더욱 크게 해야하며 기름값등 出漁費用과 時日이 오래 걸리게 되며 빈약한 장비로 出漁하게 될 때에는 危險性이 크게 늘어난다. 이와 같은 현상을 經濟學에서는 外部의 非經濟라고 하는데 몇 사람의 水質汚染행위로 말미암아 下流에서 同一源川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害를 끼치고 水資源利用費用을 上昇시키는 환경문제와 같은 次元에서 파악된다.

魚資源같이 經濟的危險水準 또는 임계지대가 있는 資源은 이 위험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어획량을 제한하고 資源을 잘 管理하면 거의 永久히

그 자원을 해마다 利用할 수 있게 된다. 즉 資源의 最大持續的生産을 維持하도록 保全的利用을 도모하지 않으면 沿近海 水産業의 장래는 매우 어둡다. 우리나라도 魚資源의 保全과 漁民의 所得保護와 安定을 위하여 어족의 포획시기, 치어의 포획금지, 그물눈 크기의 제한 등 여러가지 금정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一部 漁民들이 눈앞의 利益만을 위하여 一部 魚資源을 고갈시켰고 또 고갈시키고 있기 때문에 沿近海 漁業전체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 II. 水産業의 現況과 問題點

### 1. 遠洋漁業의 急成長

우리나라의 水産業은 세 차례에 걸친 經濟開發 5 個年 계획을 수행하는 동안 커다란 伸張을 이룩했다.

1962년에서 1976년에 이르는 15年동안 年평균 GNP의 성장율이 약 10%였으나 水産業은 같은 기간 동안 16%의 높은 성장율을 나타냈다. 水産業의 성장을 내역별로 보면 1962년에는 수산업이 GNP에 대한 구성비율이 1.7%였으나 꾸준히 성장하여 1976년에는 3.1%를 차지하였다.

어업생산량은 1962년에 470.2千% 이었으나 1976년에는 5배가 넘는 2,407千%을 생산하였다. 이를 어업별로 보면 15년 동안 일반어업은

〈表 1〉 수산경제의 주요지표

구분	단위	'62	'67	'72	'76
1. 생산량 (지수)	千 %	470.2 (100.0)	750.3 (159.0)	1,343.5 (285.8)	2,406.9 (511.8)
일반어업	千 %	451.4	612.7	959.0	1,271.5
양식어업	"	18.1	97.2	160.4	411.1
원양어업	"	0.7	40.4	224.1	724.3
2. 수출 (지수)	千 \$	13,341 (100)	57,499 (466)	152,564 (1,236)	527,408 (3,593.3)
3. 어선세력	척	45,504	57,255	67,679	65,822
동력선	"	161,709	262,079	451,767	662,000
무동력선	"	80,105	179,117	366,844	604,740
	"	81,604	82,961	84,923	57,251

자료: 수산청, 수산업에 대한 연차보고서, 1977.

182% 증가했으나 양식어업은 2,183% 원양어업은 약 10만배가 증가 그 동안 원양어업과 양식어업의 성장이 눈부셨던 반면 일반 연근해어업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음이 나타나고 있다.〈表1〉

원양어업을 주축으로한 이와 같은 높은 성장은 우리나라를 1976년에 2,407千%의 水産物을 생산 世界第7位의 水産國家로 떠오르게 했고 水産物의 輸出은 567百萬弗에 달하여 世界第4位의 水産物輸出 國家가 되었다.〈表2〉〈表3〉

〈表 2〉 주요국별 수산물 생산실적

단위: 천%

국별	년도	'72	'74	'75	'76
일본	10,272	10,804	10,508	10,500	
소련	7,757	9,243	9,876	10,000	
중국	7,570	7,578	7,650	7,650	
페루	4,724	4,150	3,447	4,255	
노르웨이	3,186	2,645	2,550	3,388	
미국	2,695	2,773	2,799	2,900	
한국	1,344	2,026	2,135	2,400	
인도	1,637	2,255	2,328	2,400	
덴마크	1,443	1,835	1,767	1,878	
스페인	1,531	1,513	1,533	1,500	

자료: F. A. O. COFI/77/6, 1977. 3

〈表 3〉 주요국별 수산물 수출실적

단위: 백만\$

국별	'72	'74	'75	'76
노르웨이	362	517	515	665
일본	467	609	490	599
캐나다	343	433	442	590
한국	142	260	398	533
덴마크	242	440	427	500
미국	152	253	298	330
아이슬랜드	140	248	245	292
네덜란드	162	216	258	252
소련	96	162	212	221
스페인	151	209	182	220
페루	281	256	207	190

자료: F. A. O. COFI/77/6, 1977. 3

어획물 및 수산물조립수출액(어망제외)임

### 2. 沿近海漁業成長의 停滯

이 期間동안 漁船의 總선복량도 꾸준히 증가하여 1962년에 162千척이었던 어선이 1976년에는 662千척으로 확장되었다.〈表1〉

그러나 원양어업의 船復量과 원양어업 어획량,

양식어업 생산량을 제외한 총어획량을 연근해 어선의 톤수로 나눈 톤당年間 생산량은 1962년의 2.8톤에서 1967년 2.5톤 1972년에 2.5톤 1976년 3.2톤으로 연근해어선어업의 톤당生産性은 踏歩를 번치 못하고 있다. 즉 양식어업을 제외한 沿近海어선 어업은 1976年 126萬%의 생산량을 보여 총어획량의 52%를 차지 하였다.

그러나 이는 1966년에 전체의 83%를 차지하였던 것에 비하면 그 동안 沿近海어업의 성장속도가 타어업에 비하여 매우 낮았음을 나타낸다.

### 3. 漁家戶數의 감소

漁家戶數는 1976년에 153千戶로 우리나라 총가구수의 약 2.2% 農家戶數의 약 6.5%이다. 漁家口는 같은 해에 880千人, 漁業從事數는 327千人으로 1966年을 頂點으로 해마다 漁業人口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表 4> 즉 우리나라 어업종사자수는 1967~1971년 5개년동안 年평균 9.9%의 급격한 감소를 보여 왔으며 1972~1976년 5개년 동안은 年평균 4.2%로 감소, 10년동안에 44.7%가 감소 하여 어업인구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表 4> 漁業人口의 변동추세

년 도		'62	'67	'72	'74	'76
구 분						
家口員數	萬名	109	148	106	91	88
從事者數	"	46	59	39	33	33
家口數	萬戶	19	24	18	16	15

자료 : 수산청, 수산통계연보, 1977.

### 4. 經營規模의 零細性

어업종사자를 經營規模別로 보면 沿岸漁船漁業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체의 47.7%, 양식어업종사자 50.6%로 經營規模가 零細한 零細漁業從事者가 전체의 98.3%로 大宗을 이루고 있으며 大資本漁業이 0.4%, 中小規模 어업종사자가 1.3%를 차지하고 있다. <表 5> 영세어업종사자는 專業이 13.2%에 불과하고 나머지 86.8%는 半

農半漁의 生計漁業으로 구성되어 漁業人口의 兩極化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全體漁家總數中 漁船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漁家가 57%나 되고 43%의 漁船保有家口중 2톤미만의 소규모 어선 소유가구가 약 70%에 달하고 있다. 이 중의 대부분이 動力化가 되지 않는 선박이다.

또 전채어선의 23.8%가 선령10년이 지난 낡은 배이고 10톤이상의 어선 9천여척 가운데 무전기, 어군탐지기, 방항탐지기 등 최소한도의 어선 장비를 갖춘 어선은 31%에 불과하여 나머지 69%가 갖추어야할 장비를 제대로 못 갖추고 있다.

<表 5> 漁業從事者의 構成

(1975年度) (單位:千人)

	全 體	大資本 漁 業	中小 漁 業	零 細 漁 業		
				小 計	沿 漁船漁業	岸 養殖漁業
全 體	322.9 (100)	1.2 (0.4)	4.3 (1.3)	317.4 (98.3)	154.1 (47.7)	163.3 (50.6)
經營者	282.9 (100)	0.2 (0.1)	0.9 (0.3)	281.7 (99.6)	119.9 (42.4)	161.8 (57.2)
雇傭者	40.0 (100)	0.9 (2.3)	3.4 (8.5)	35.7 (89.2)	34.2 (85.4)	1.5 (3.8)

자료 : 수산청, 연근해 어업진흥계획, 1977.  
( )內는 構成比임.

### 5. 漁家所得의 低位

1976년의 戶當平均 漁家所得은 1,059千원으로 農家戶當平均所得 1156.3千원의 91.6% 都市勤勞者 家計所得 1151.8千원의 약 92%에 불과하다. 그러나 漁家를 漁船未保有漁家, 無動力船保有漁家 養殖漁家, 動力船保有漁家로 나누어볼 때 어가소득은 漁船未保有漁家가 戶當年 832千원, 無動力船保有漁家가 859千원 양식어가 928千원으로 平均戶當農家所得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 <表 6>. 다만 動力船保有漁家만이 1,476千원으로 平均어가소득과 농가소득 수준보다 높아 계층별 어가소득이 심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漁家所得의 추계는 大企業에 依한 遠洋漁船어업을 빼고 있으나 GNP계상에는 어업부분에 計上되고 있다.

〈表 6〉 階層別漁家所得(1976年度)\*

		漁船未保有	無動力船	養殖	動力船
漁家所得	千 원	832	859	928	1,476
(漁業所得)	"	399 (48)	472 (55)	399 (43)	1,122 (76)
(漁業外所得)	"	433 (52)	387 (45)	529 (57)	354 (24)
農家所得對比	農家=100	72	74	80	128
都市勤勞者所得對比	都市勤勞者=100	72	75	81	128

자료: 수산청, 연근해 어업진흥계획, 1977.

\* 1975年度 漁家經濟調查結果를 延長하여 76年度 階層別 漁家所得을 推定함.

( )內는 構成比(%) 인.

### 6. 動力漁船의 부족과 施設의 未備

1976년 현재 우리나라의 漁船의 總隻數는 65,822척에 662千%으로 隻當 平均噸數는 약 10%이다. 이는 1966년에 비해 척수에 있어서는 15%, 噸수에 있어서는 152.6%의 증가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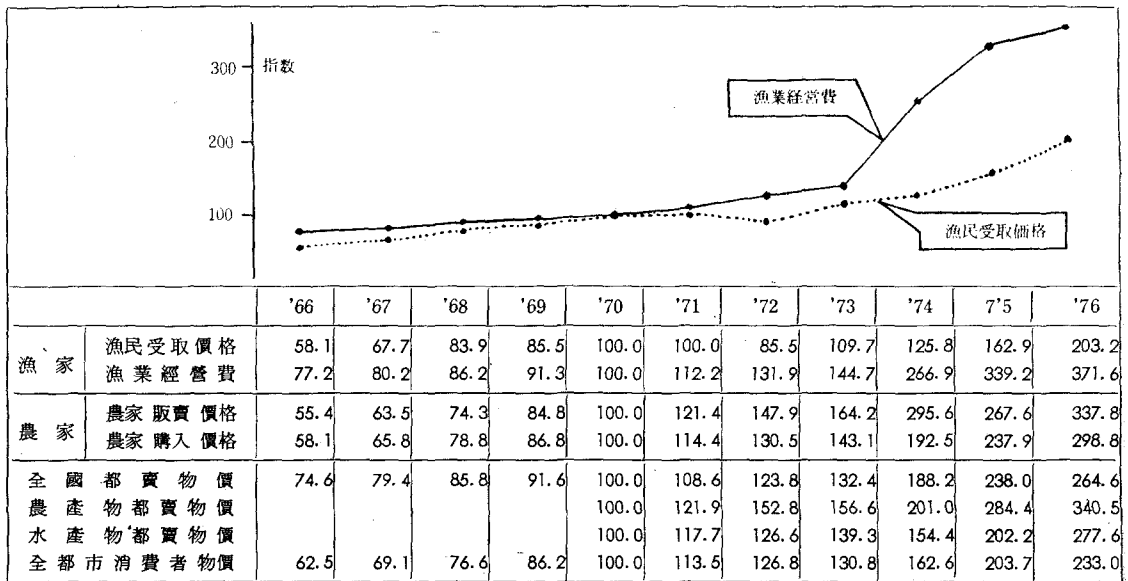
어선을 動力船과 無動力船으로 구분하면 동력선이 22,731척 604千%으로 척당 평균톤수는 1.3%로 무동력선이 전체척수의 65.5%에 이르고 있다.〈註2〉 動力船중 遠洋漁船 1976년에 878척 342千%으로 전체동력선 톤수의 57%를 차지하

고 있다. 이와 같은 漁船勢力에 비하여 어선을 수용정박시킬 수 있는 漁港施設이 부족하여 總 漁船勢力의 38.5% 밖에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註3〉

### 7. 漁家交易條件惡化

수산물의 流通構造는 다른 어떤 상품보다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유통마진이 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수산물생산의 局地性, 局時性등의 이유로 需要에 따른 適時適量供給이 어렵고 강한 廢敗性과 貯藏의 곤란과 취급 商人의 재정적 위험 부담이 큰데 기인한다. 따라서 현행 수산물의 流通段階는 4~5단계를 거치며 유통마진도 평균 53~63%의 마진이 붙여지나 종류에 따라서는 100%가 넘는 것도 많다. 수산물의 공급, 局時性, 局地性은 漁民들로 하여금 生産된 수산물을 싼 값에 팔아 넘기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는 반면 油類價格, 人件費, 등을 중심으로한 漁業經營費가 급증하고 있어 漁家の 交易條件이 점차로 惡化, 어민실질소득의 伸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表7〉. 沿近海 어선어업의 生産費중 油類代가 평균 48%로 가장 큰 항목으로 72년에 비해

〈表 7〉 漁家交易條件과 農家交易條件의 比較



資料: 水産廳

3.3배이상 값이 올랐다. 1976년의 경우 漁民의 受取價格指數는 1970년을 100으로 했을때 203.2이었는데 반해 어업경영비지수는 371.6으로 심각한 逆調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農家販賣價格 지수는 338, 農家購入價格 지수는 299로 농가경제에 비해 훨씬 劣惡한 條件에 있다.

8. 客主制와 實物分配

漁家經濟의 영세성 등으로 인한 營漁資金의 공급 부족으로 全漁家의 72%가 高利의 私債에 의존하고 있으며 客主私債의 경우 總부담금 金利가 年 64.6%에 달하고 있어 水産資金의 부족으로 어업경영이 크게 압박을 받고 있다.

營漁資金의 공급실적은 1976년 228億으로 總용자 신청액의 62% 밖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뿌리깊은 客主制와 保合制가 그대로 살아 있어 자기 어선을 갖지 못한 어민은 保合制에 의해 잡은 고기의 60~70%를 船主에게 주어야 하며 營漁資金不足으로 어민의 72%가 月利率 5~6%의 고리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註4) 保合制란 남의 배에 타고 고기잡이를 하는 경우 고정급이 없이 잡은 漁獲量중 경비를 제외하고 30~40%를 받는 제도이며 客主制란 營漁資金을

客主로 부터 先貸받고 漁獲物로 高利를 붙여 상환하는 제도이다.

- (註 1) S. V. Ciriacy-Wantrup, Resource Conservation; Economics and Policies (3rd 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p. 42.
- 2) 水産廳, 水産業動向에 대한 年次보고서, 1977, p. 119.
- 3) 水産廳, 沿近海漁業振興計劃(1977-1981), p. 10.
- 4) 水産協同組合調査

Ⅲ. 水産業의 展望과 進路

1. 水産物 수요의 증가와 供給의 非彈力性

가. 水産物需要의 增加

국민 1人當 水産物의 수요는 경제발전 에 따른 所得의 증가와 食品소비패턴의 變化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 炭水化合物을 주성분으로 하는 穀類消費가 대폭 감소되는 반면 所得彈力性이 높은 蛋白質식품인 肉類와 水産物의 수요가 계속 늘어갈 것이다. 人口 1人當 食糧소비를 기초로 하여 韓國開發研究院이 推計한 食品別 소비지출의 構成을 보면 1975년에 家計의 水産物에 대한 消費支出比率은 전체식품구입비의 8.45%였으나 1981년에는 10~12%로, 1986년에는 12.69%로, 1999년에는 13.16%로 크게

<表 8> 畜産物 및 水産物需要展望 (1975~91)

	單 位	1975	1976	1981	1986	1991	年平均成長率 (%)		
							77~81	82~86	87~91
肉 類	1人當 (kg)	6.37	6.84	8.82	11.25	14.87	5.22	4.99	5.74
	總 量 (%)	224,734	245,089	342,278	473,490	672,882	6.91	6.71	7.28
쇠 고 기	1人當 (kg)	1.99	2.15	2.97	3.78	5.00	6.68	4.94	5.75
	總 量 (%)	70,292	76,983	115,257	159,093	221,255	8.41	6.66	6.82
돼지고기	1人當 (kg)	2.80	3.02	3.50	4.27	5.43	2.99	4.06	4.92
	總 量 (%)	98,848	108,218	135,824	179,716	245,713	4.65	5.76	6.46
닭 고 기	1人當 (kg)	1.58	1.67	2.35	3.20	4.44	7.07	6.37	6.77
	總 量 (%)	55,594	59,888	91,196	134,681	200,914	8.77	8.11	8.33
계 란	1人當 (個)	82	85	113	145	176	5.86	5.11	3.95
	總 量(百萬個)	2,896	3,048	4,385	6,103	7,964	7.55	6.84	5.47
우 유	1人當 (kg)	4.60	5.55	12.73	26.92	49.80	18.06	16.16	13.09
	總 量 (%)	162,435	198,891	494,013	1,133,008	2,253,499	19.96	18.06	14.74
水産物	1人當 (kg)	44.17	47.81	68.09	93.71	114.440	7.33	6.60	4.08
	總量(1,000%)	1,558	1,714	2,642	3,944	5,178	9.04	8.34	5.60

\* 總肉類에는 기타 肉類가 포함되어 있고, 水産物은 廢棄率을 勘案하지 않은 總水産物量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장기경제사회전망(1977-1991)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註1) 이를 1人當年消費量으로 換算해 보면 1975년에는 水産物 47.81kg에서 1991년에는 114.44kg으로 年6%이상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表8>

나. 漁種別 水産物 供給不均衡

이와 같은 水産物의 需要增加를 충족하기 위하여 水産物의 生産量은 1991년에는 5,178千%이 供給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國立農業經濟研究所 長期에측에 따르면 1人當 GNP는 KDI에측대로 年平均 8.4%씩 증가하고 水産物의 價格은 과거추세치 대로 增加할 경우 1991년에 水産物수요량이 5,740千%으로, 훨씬 수요량이 많아질 것으로 推計되고 있다. (註2)

우리나라 國民들이 水産物로부터 단백질의 主要供給源이 되어왔고 水産物에 대한 기호가 높아 위에서 推定한 水産物의 수요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회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미, 민어, 광어, 새우, 고급조개류등의 高級漁種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갈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水産物의 공급능력이 부족하여 活鮮魚의 漁價는 매우 비싸질 것이며 海産物음식은 高級음식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원양어업의 展望

가. 海洋분할

우리나라의 遠洋漁業은 1957년 印度洋에 참치 연승어업의 시험조업이 효시이었고 1962년에 5척의 참치어선이 태평양에 출어, 657%의 참치를 수출함으로써 본격화 하기 시작하였다. 원양어업의 生産추세는 1962년의 657%보다 1967년에는 62배, 1972년에는 341배, 1976년에는 1,102배로 增加된 724,250%을 生産하였고 수출액은 262,545千弗에 달하였다. (註3) 遠洋漁船세력은 850척, 총톤수 315千톤, 船員數는 22,715명이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걸쳐 21개 어업기지

<表 9> 遠洋漁船 出漁현황 (78.2.28)

海城	基 地 名	참치	트롤	기타	계	총톤수	선원수
太 平 洋	사 모 아	115		2	117	23,719	2,766
	피 지	9			9	1,762	227
	발 보 아	2			2	385	48
	준 타 레 네 스	6			6	1,480	159
	발 파 라 이 소			6	6	6,073	250
大 西 洋	팔 라 우			7	7	372	175
	베 링 해		32	2	34	78,933	2,710
	라 바 울			5	5	919	145
	뉴 질 랜 드		5	19	24	10,822	815
	獨 航 船	85		9	94	35,014	2,711
印 度 洋	테 마			18	18	5,669	634
	세 인 트·마 린	19			19	4,589	503
	아 비 칸	16			16	4,626	440
	테 네 리 페	43			43	12,366	1,135
	포트·오브·스페인	13			13	3,687	341
大 西 洋	라 스 팔 마 스	27	94		121	50,128	3,872
	파 라 마 리 보		130		130		
	바 베 이 도 즈	1			1	236	26
印 度 洋	타 미 타 브	5			5	1,420	140
	포 트 루 이 스	16		1	17	3,928	460
	갈	9		2	11	2,581	312
	반 다 아 바 스	5	15		21	6,302	586
	더 반	1		1	2	494	50
獨 航 船	129			129	46,825	3,565	
計		501	276	73	850	315,222	22,715

자료: 수산청

를 두고 있다. <表9> 그러나 遠洋漁業의 成長은 1977년 3월 1일을 기해 실시된 美國과 蘇聯의 200海里 經濟水域宣布로 北洋의 主어장인 캄차카어장이 완전 상실되고 베링해와 알라스카 연안에서의 명태를 주종으로 한 81,190%의 어획쿼터가 배정되어 1976년을 기점으로 어획량의 격감과 함께 원양어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北洋에서 잡아오는 明太는 國內에 반입되어 庶民의 食탁에 올랐으나 값싼 명태의 공급원이 대부분 喪失되어 水産物 가격상승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나. 資源保護 時代의 來到

미국, 소련, 캐나다 뿐아니라 EC, 中南美 아프리카연안의 주요 어장연안국 40여개국이 200海里 經濟수역을 선포하였고 뉴질랜드도 곧 200海里 經濟수역이 발효된다. 또한 주요 국제기구에

서도 資源의 保護를 目的으로한 各種 規制조치를 強化하고 있다. 經濟水域 선포국의 수역내에서 入漁가 許可된 어선들도 많은 入漁料를 물어야 하며 現地人의 무리한 고용요구등으로 生産費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이에 덧붙여 國內經濟의 急速한 발전으로 勞賃이 上昇될 것이 예상되므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점차 어려워질 것이며 에너지 가격의 상승, 위험한 직업을 기피하는 경향등이 늘어 원양어업의 장래성은 그리 밝지 않다.

또 世界的面에서 볼 때 재래어종의 年間漁獲 잠재가능량은 全世界의 바다에서 약 1억톤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1976년의 잠정어획량 추계는 약 72,100千%에 달해 資源의 限界性에 점차 접근해가고 있다.(註4)

3. 沿岸海 漁業의 장래

가. 200해리시대의 沿岸海 漁場

우리나라 沿岸海의 漁場은 東西漁撈 限界線아 래서부터 시작 濟州島 남방까지 약 486,000km<sup>2</sup> 이다. 만일 200해리 經濟水域을 인접국과 等距離선으로 分割한다면 어장면적은 320,000km<sup>2</sup> 내지 360,000km<sup>2</sup> 정도로 줄어든다. 200해리 경제 수역을 가정하면 東支那海의 어장 一部와 東海의 大和堆 오징어 어장의 일부가 상실된다. 그러나 각종 난류성 底棲魚種의 월동지이고 난류성 浮魚類의 발생장인 제주도 西南方의 소코트라 (sokotra) 주변의 황금어장이 우리 경제수역에 들어오므로 日本漁船團의 壓力에서 벗어나 年間 25~30만%의 어획의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全體的으로 볼 때 東海一部와 동지나해 一部에서 잃은 것을 소코트라어장에서 보충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연근해어장의 생산량을 특별한 生産性의 변동이 없는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註5)

국립수산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

근해의 어장이 200해리 시대에 접어들더라도 32만~36만km<sup>2</sup>에서 허용 어획가능량은 年間 약 130~150만%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註6) 現在의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선어업에 의한 年間 수확량은 126만톤에 달하고 있어 허용어획 가능량에 육박, 沿岸海漁船漁業을 통한 增産의 가능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資源枯渴과 增産可能性

高級魚種에 속하는 도미, 민어, 큰새우, 대구, 광어, 참조기등은 모두 底棲性魚類로 우리나라 沿岸海 어선어업의 주요대상 어종이다.<表 10> 그러나 이 어종중의 대부분은 近代의 장비에 의

<表 10> 沿岸海 漁場에 分布하는 主要魚種群集

群 別	生態的 區分	種 類
1 群	外洋性 回遊魚	다랭이류 연 어 송 어
2 群	多獲性 浮魚類 및 頭足類	청 어 정어리, 눈통멸 멸 치 류 전갱이류 고등어류 꽂 치 방 어 삼 치 류 오징어
3 群	底棲性 魚 類	상어류(청사리상어, 곰상어, 기타 상어) 넙치, 가자미류 대 구 명 태 임연수어 병 어 도 루 목 갯 장 어 갈 치 돔류(참돔, 강성돔, 옥돔, 기타 돔) 조기류(참조기, 강달어, 기타조기) 민 어 취 치
4 群	安着性 動物및 海藻類	문어, 낙지류 새우류(천연 및 양식) 게 류( " ) 패 류( " ) 해 조 류( " )

한 集中的 어로의 결과 資源群이 대폭 줄어들어 漁場이 점점 遠距離化 되고 單位勞力當 어획량은 점차 감소되어 어선의 大型化와 遠距離化가 惡循環的으로 되고 있다. 즉 統營 앞바다에서 잡

치자원은 점차 고갈되어 관련어민의 漁業所得과 水産物의 공급에 큰 차질을 받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註8) 東海의 公치어획량은 理論的許容漁獲量을 최근 6년동안 5개년 이상을 초과

〈表 11〉 年度別 主要魚種別 沿近海 漁業生産量 추계

(단위: %)

년 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어	종													
넙	치	류	2,117	2,625	3,897	3,738	2,510	3,123	4,336	6,659	7,339	6,744	5,086	4,011
대		구	2,252	2,211	2,286	2,218	3,279	2,753	2,571	757	717	1,365	1,653	435
참		돔	1,118	1,445	1,460	1,806	856	792	967	1,796	1,721	1,785	1,789	1,368
명		태	26,696	21,013	17,503	28,676	10,016	13,418	11,241	40,492	42,628	64,512	4,540	5,546
민		어	3,163	2,840	2,150	2,526	1,142	1,597	967	997	1,092	2,325	1,999	1,951
조		기	39,608	44,543	35,680	45,392	30,447	31,765	24,554	25,352	24,947	54,130	40,056	45,356
갈		치	37,683	45,348	48,713	18,592	47,922	69,082	82,866	110,309	124,150	166,391	120,078	75,559
별		치	56,716	66,349	78,538	63,127	115,056	54,047	66,904	104,174	95,572	173,457	175,451	126,202
고		등	7,339	2,078	2,772	10,481	42,103	38,256	60,599	78,969	74,150	80,649	70,123	107,382
공		치	32,281	39,404	27,858	29,899	29,748	25,036	30,592	38,544	34,148	31,723	25,958	42,121
대		하	1,998	1,406	3,097	2,301	230	457	266	704	3,794	3,005	5,946	793
대		계	271	403	756	435	253	247	494	132	355	340	100	9
오		징	68,368	75,473	38,945	84,664	59,898	72,142	37,625	52,749	44,152	31,354	37,238	45,227

자료: 수산청, 수산통계연보 1977.

히던 대구는 集中어획으로 거의 없어져 버렸고 영덕 앞바다에서 잡히는 대게도 남획으로 멸종상태이며 민어의 포획량도 급속히 줄고 있다(表 11). 연평도 近海에 형성되던 참조기어장도 황폐되어 멀리 濟州島南方 양자강 하구쪽의 東支那海에까지 遠距離出漁, 小型漁船을 가진 零細漁民들은 출어할 수 없어 영세어민의 所得增大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底棲漁類는 大資本에 의한 원거리 출어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 생산량이 정체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個別漁種의 증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좀처럼 더 이상 생산량이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註7)

정어리, 멸치류, 고등어류, 오징어류, 공치류 등 多獲性浮漁類는 최근에 그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진흥원에서 東海의 최대 漁業資源중의 하나인 공치에 대한 17년간의 資源診斷연구 끝에 공치자원의 持續的인 安定수확을 위해서는 年 30,000%이상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이상 공치를 잡으면 공

하였고 1976년에는 1만 2천%을 초과 40,000%을 잡아 資源保全에 큰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다.(註9) 그러나 資源의 群集이 비교적 큰 第2群에 屬하는 多獲性浮漁類인 고등어, 멸치, 그리고 최근에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정어리와 같은 漁種은 集中的인 漁業의 압력보다는 海洋環境의 변화와 이에 따른 漁場의 형성 등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물고기의 生態등에 관한 研究가 필요하다. 멸치나, 정어리, 고등어 같은 多獲性浮漁類는 漁場環境이 좋은 조건에 놓이면 어획량은 현재의 水準보다 훨씬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註10) 이와같은 水産資源은 海洋環境과 浮漁類의 生態를 완전 이해하고 漁具와 漁法의 改良으로 增産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 增養殖漁業에로의 轉換

가. 기르는 漁業

漁船의 大型化와 漁具, 漁法이 近代化됨에 따라 集約的 대량어획이 年中 가능해지자 水産資源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沿近海漁業은 국내어



선 및 한국, 일본, 중공어선의 競爭의 포획으로 持續的인 어업생산량 증가가 불가능해지고 遠距離출어에 따른 經費의 上昇, 人命損失의 위험 부담증가, 다량어업으로 인한 漁價의 不安定性, 沿岸 영세어민들의 출어불가능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어업은 零細漁民들의 所得을 증진시키고 國民들에게 급증하는 수산물의 수요에 대처 安定的인 水産物을 供給하기 위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漁業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 나. 養殖漁業과 自然條件

다행히 우리나라의 西海岸과 南海岸은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으며 바다가 얕아 바다農場으로서 좋은 條件을 갖추고 있다. 養殖漁業은 1970年代初부터 착실히 성장을 하여 1976년에는 41만톤의 貝類, 새우, 海藻類를 생산,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年度別生産構成比를 보면 貝類가 52.5% 해조류 46.6%, 기타 새우등이 0.9%로 굴, 백합, 반지락, 꼬막, 홍합등 貝類와 해태, 미역, 친초, 등 해조류가 양식어업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해안 중 水深 30m이내의 얕은 바다면적의 약 10~20%가 增·養殖어업의 適地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栽培漁業適地面積은 40萬~80萬ha(4,000~8,000km<sup>2</sup>) 나 된다. 이중 1976년까지 養殖場으로 開發된 면적은 47,493ha에 불과 전체 가능면적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면적이 開發되어 增·養殖어업장으로 사용된다면 현재의 연안어장과 양식장의 면적당 평균 생산력으로 미루어볼 때 年間 漁類 300,000%, 貝類 850,000%, 海藻類 660,000% 기타수산물 60,000%으로 약 1,870,000%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40%를 天然으로 잡더라도 60% 해당하는 약 1,100,000%은 재배어업을 통한 수확이 될 것이고 연안에서의 漁船漁業에

의한 어획량 연간 1,300,000~1,500,000%을 합하면 연안 양식어업의 총잡재생산력은 2,400,000%~2,600,000%에 이를 것이다. (註11)

만일 양식어업의 技術을 계속 발달 시키고 漁場면적을 늘리면 생산력을 충분히 倍加 또는 그 이상 提高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 內水面漁業의 잠재력

우리나라의 內水面은 커다란 開發잠재력이 있으나 대부분이 農地를 闕개하기 위한 水利施設 또는 水力發電등의 목적에 사용되므로 갈수기에 水量不足으로 자원관리상 난점이 있고 특히 공장폐수와 水質汚染에 따른 자원피해의 문제점이 크게 대두하고 있다. 또한 주요 어족에 대한 양어기술개발이 완전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내수면개발의 문제점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內水面養殖의 技術開發과 漁種의 品種改良등에 힘을 쏟는다면 內水面을 통한 生鮮의 공급 잠재력은 매우 크다.

(註 1) 韓國開發研究院, 長期經濟社會展望(1977-1991), p. 145.

2) 國立農業經濟研究所, 農業豫測 모델 設定, 농업경제 연구보고 第98第, 1978, p. 87.

3) 水産廳, 水産業動向에 대한 年次報告書, 1977, p. 42.

4) Ibid., p. 11.

5) 김기영, "해양분할시대에 대처한 연근해어업의 진로", 국립수산진흥원, 1977, p. 5 (非公開油印物)

6) Ibid.

7) Ibid., p. 8.

8) 孔泳, 李章旭, "韓國產 珉石 資源에 관한 研究", 국립 수産振興院 연구보고 16호, 1977, p. 9.

9) 水産廳, 水産統計年報 1977, p. 75.

10) 김기영, "해양분할 시대에 대처한 연근해 어업의 진로", 국립수산진흥원, 1977, p. 9.

11) Ibid. p. 26.

## IV. 問題解決을 위한 몇가지 對策

### 1. 資源調査研究

水産物의 安定的供給과 漁家所得의 持續的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沿近海어선 漁業은 잡는 것 至上主義를 버리고 計劃的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秩序있는 漁撈를 통해 水産物의 持續的 收穫을 꾀하도록 어장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우리나라 沿近海에 있는 水産資源에 대한 科學的인 인벤토리와 아울러 水産資源의 生活史를 포함한 어장환경에 對한 生態的 研究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各種漁類와 貝類등에 대한 기초생산량 조사와 더불어 잠재생산 능력과 개발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장기간에 걸쳐 한다는 이를 토대로 각종 수산물의 어획량을 결정, 수산 資源의 지속적 생산에 着점을 두어야 한다.

### 2. 不正漁業의 단속과 資源保全

主要수산자원의 持續的 生産이 可能하기 위해서는 無差別 남획을 防止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치어의 포획금지, 산란기의 어획방지, 漁種에 따른 그물눈의 크기, 遠洋어선의 연근해 조업금지등 여러가지 規定이 있으나 감시구역이 광활한데다가 不正어업을 단속할 지도선의 부족 등으로 効果적인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沿岸漁場의 生産性을 높이고 資源을 合理的으로 管理하기 위해서는 不正漁業의 단속에 行政力을 集中해야 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도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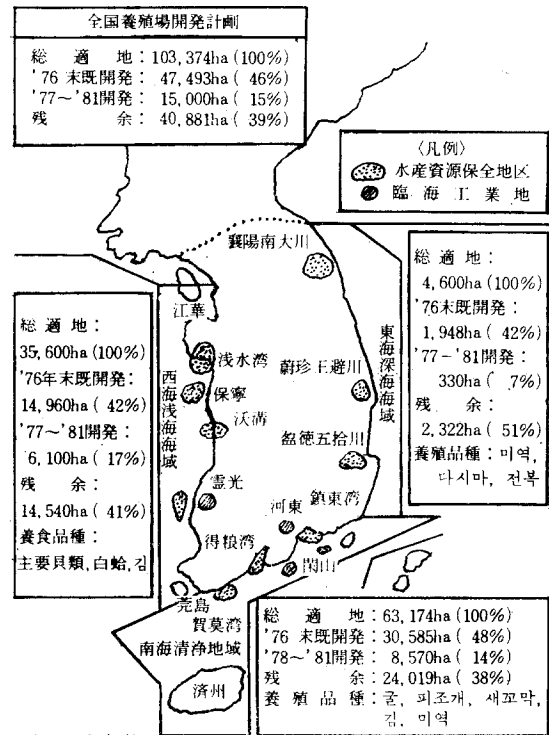
### 3. 養殖技術의 開發

水産物生産의 획기적인 增産을 가장 많이 期待할 수 있는 分野는 養殖을 주축으로 한 栽培 어업이다. 栽培漁業을 育成하여 國民의 水産物 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하여서는

人工漁礁를 沿岸에 많이 投下하여 漁類의 산란장을 조성하고 서식처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水産先進國에서는 폐기 시킨 자동차류, 선박류 또는 콘크리트관등을 바다 속에 가라앉혀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 이와같은 人工漁礁는 小型어선을 위주로한 零細漁民들의 꾸준한 所得源이 될 수 있다. 日本의 경우 人工漁礁를 투하하여 3년후 200%를, 6년후에는 300%의 生産量 增加를 보였다.(註1)

養殖場으로 使用가능한 곳을 신규로 개발하여 養殖面積의 擴大가 필요하다. 양식장의 適地面積은 103,374ha인데 이중 약 47%에 해당하는 47,493ha가 개발되었다. <表11> 나머지 면적을

<表 11> 海域別 養殖場開發計劃



자료 : 水産廳

개발하기 위하여서는 對象의 海洋環境調查 適正 品種의 選定에 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地域別 適正品種養苗와 이를 栽培할 수 있는 技術, 병충해를 防除 할 수 있는 技術에 대한 연구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現在까지는 東海地域에서 미역, 다시마, 흑양등이 양식되고, 南海地域에서는 굴, 미역, 김, 피조개등이 西海에서는 백합등 폐류가 재배되며 새우양식이 시도되었으나 技術의 부족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註2)

### 4. 金融支援

재배되는 養殖漁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行政的인 조치로서는 長期低利의 金融의 필요성이 크다. 養殖漁業은 事業着手시부터 수확

때 까지 보통 2년이 걸리며 많은 施設投資 運營費가 소요된다. 반지락의 경우를 예로 들면 10ha당 6,102,450원의 생산비가 소요되고 2년후 100%이 수확가능하여 약 23%의 수익률을 내는 것으로 試算된다.(註3)

養殖漁業은 政府에서 零細漁民의 所得事業으로 協業化하며 推進할 계획이므로 영세어민들에 대한 자금지원과 그 수속에 대한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금부족으로 1976년에는 179ha에 달하는 패류양식장이 중도에서 포기되었고 1977년에는 83ha에 달하는 굴과 피조개 양식장이 포기 되었다.

#### 5. 海洋環境改善과 水質保全

蹉跎없는 沿近海어업 진흥계획수행과 全沿岸의 養殖場化와 이의 發展을 위해서는 海洋環境의 改善과 水質保全策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입해工業團地의 擴大와 人口의 增加에 따른 工業廢水와 都市下水로 인하여 수질오염은 主要沿岸에 심각한 問題로 직면되고 있다. 6年間 水産振興院에 의한 一部地域의 海洋오염 조사결과에 따르면 重金屬含量的 기준치 초과 해역이 증가추세에 있고 油類, 浮遊物質등 一般汚染物의 含量이 증가경향에 있어 全海岸에 걸친 조사 강화와 이에대한 對策이 시급하다. 養殖漁業의 계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해양오염과 환경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주 蔚山, 釜山, 馬山, 固城등 전국 12개 해역의 海水中 重金屬인 구리의 含量이 外國의 기준치인 10ppb(10억분의1)를 넘는곳이 10개 海域 아연의 기준함량인 100ppb를 넘는곳이 9개 해역에 이르고 있다.(註4)

#### 6. 漁貝漁法의 開發

다수확성 浮漁類 어선어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漁貝, 漁法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現在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漁貝와 漁法은 대부분 日本人들이 사용하던 方式를 채택한 것으로 漁場의 거리가 멀어지고 漁船이 大型化되고 있는 추세에 알맞도록 改良出漁에 따른 經費가 급상승하고 있으므로 한 種類뿐 아니라 여러가지 종류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漁貝의 개발이 必要하다. 최근에 일본에서 개발한 소형선망과 靑智網 같은 것이 그 例가 될 수 있다. 소형선망은 오징어, 정갱이 뿐만 아니라 멸치, 정어리까지 잡을 수 있고 오지망은 魚群의 濃도가 낮은 것을 군집시켜 濃도가 큰 魚群으로 유인하여 포획한다.

#### 7. 漁村指導의 強化

沿近海漁業과 養殖漁業의 育成을 위하여서 시험연구결과와 迅速傳達 및 漁村指導弘報기능의 擴大化가 必要하다. 特히 양식어업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敎導要員이 배치되어 여러가지 양식기술과 병충해 방제기술에 대한 기술지도 없이는 양식어업이 성공하기 어렵다. 現在 漁村指導職은 82명으로 沿岸 市·郡當 1.2人 꼴 밖에 안되며 1人當 374個마을 11千명의 漁民을 지도해야 하는 목이므로 實質의인 漁村의 指導가 不可能하다. 또한 해태, 굴, 백합, 우렁쟁이등 品種別로 전문화된 要員이 必要하다. 現在의 체제로서는 漁民들이 必要한 技術情報를 전달할 수 없는 實情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漁村契로 이양된 제 1종 共同漁業을 통해 영세어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원활한 水産物의 供給을 위해서 品種別로 생산技術을 가진 지도원을 배치하여 漁場관리지도, 種苗의 투입에 관한 지도, 資源保護지도, 經營지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8. 漁業外交의 強化

沿岸國家들은 自國의 水産자원확보를 위하여 앞을 다투어 200해리 經濟水域선포를 하고 있다. 世界의 주요어장과 대륙붕은 대부분 200해리 안에 들어 있다. 특히 캐나다, 노르웨이등 풍부한

어장이 自國의 200해리 경제수역안에 들어있는 나라들은 수산물생산에 대한 國際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은 출어경비의 상승과 각종 규제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같이 主要어장이 없는 원양어업국들은 다투어가며 海外어장 확보를 위해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아래서도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하여서는 국제수산기구와 국제수산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既存 어업권을 확보하는 동시 각 沿岸國들과 入漁權 확보, 技術協力, 合作投資등을 통하여 상호 공동이익을 위한 漁業外交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 9. 安全操業과 漁船 및 裝備의 現代化

漁船勢力증가에 뒤따르지 못하는 漁港施設과 각종어선의 通信施設의 미비와 沿岸資源의 무계획한 남획으로 인한 자원고갈로 연안의 영세어민들이 무리하게 遠海에 출어함으로써 漁船사고가 많이 發生,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漁船事故 隻數는 1966년에 2,053척을 최고로 1971년에는 1,937척, 1975년에는 58隻, 1976년에는 809척으로 감소경향이 있으나 漁場의 遠距離化로 人命피해는 점차로 커지고 있다(註5).

빈번한 海難사고발생의 또 한가지의 원인은 季節的 태풍내습기와 盛漁期가 많이 중복되는데도 있지만 어선, 어로장비의 老朽와 通信裝備의 부족 등에도 찾을 수 있다. 어선재난사고를 막기 위하여서는 연안자원조성과 부정어로의 철저한 금지등으로 원거리 출어를 막도록 하고 어선을 대형화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行政力으로는 여기까지 미치지 않는다. 또 현재의 制度 아래서는 20톤급이상 어선 67,000隻이 항만청, 勞動廳, 水產廳, 海岸警察의 重復 감시아래 있어 指導기능이 미흡하며 漁船의 설계, 등록, 검사등의 業務도 一元化시킬 기구가 必要하다.

#### 10. 水產統計의 改善과 漁業經營研究

어업부문의 계획성 있는 발전을 위해서 수산통계업무의 확충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수산통계는 생산통계가 위주로 되어 있으며 생산통계마저도 위판장에 상장되는 것만 취합하고 위판장이 없는 곳에서 거래되는 생산물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자원통계는 물론 어가경제, 생산비등의 기본적인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유통, 금융통계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어서 농업통계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 현재 시, 군 소재 통계직 152명 중 90여명이 雜給職으로 되어 있어 통계에 대한 기본 소양이 부족하며 낮은 보수로 이직률이 높아 통계업무 추진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漁業經營研究를 담당하는 部署가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의 一部인 수산경제연구실을 제외하고는 한 군데도 없다. 연근해 양식어업의 발달, 어가소득의 급신장을 위해서는 기술지도는 물론 어업경영에 관한 지도가 필요하다. 試驗場 데이터의 經濟分析, 生産量調査, 收益性分析, 등의 연구가 필요하며 海·漁況 및 增·養殖豫報의 실시, 漁獲物의品質과 衛生에 대한 弘報가 필요하다.

(註 1) 水產廳, 沿近海漁業振興計劃 (1977-1981), 1977, p. 103.

2) Ibid., p. 105

3) Ibid., p. 103

4) 國立水產振興院 자료

5) 水產廳, 沿近海漁業振興計劃 (1977-1981), 1977, p. 64 및 水產廳, 水產業動向에 대한 年次보고서, 1977.

### V. 結 論

우리나라는 부존된 國土事情 등 陸上 資源의 부족으로 動物性 蛋白質食糧을 水產物에 크게 依存하여야만 할 어려운 사정에 있다. 우리나라 國民 한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動物性 단백질의 必要量은 대략 25g정도로 추산되는데 실제로 섭취하는 量은 15.2g(1975年度)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중 水產物에 依한 供給量은 10.3g으로 전체 동물성단백질섭취량의 67.7%를 차지, 가장 큰

단백질원이 되고 있다. 韓國經濟가 先進國型의 産業社會로 탈바꿈함에 따라 所得의 증가로 食品의 소비패턴이 많이 바뀌어 질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水産物에 대한 家口당 소비지출은 1975년의 전체 식품구입비의 8.45% 보다 훨씬 늘어나 1991년에는 13~16%로 되어 수산물의 需要가 크게 增加될 것으로 KDI는 推計하고 있다. 이와 같은 水産物需要의 急増豫想에 대한 供給能力은 매우 不安定한 形편이다. 國內水産物供給의 大部分을 이루는 沿近海 漁船漁業의 生産量은 1977년에 126만톤에 달해 許容漁獲量을 육박하고 있으며 品種別로는 이미 資源이 枯渴된 것도 상당수에 이르러 획기적인 資源保護시책이 없이는 어선어업을 통한 增産의 가능성을 기대

하기 어려운 實情이다. 우리나라의 어업은 零細 어민들의 所得을 증진시키고 急増하는 水産物의 安定的 供給을 위해서는 잡는 漁業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方向을 轉換해야할 時點에 이르렀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西海岸과 南海岸은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으며 水深이 얕아 바다農場으로서 좋은 條件을 갖추고 있다. 養殖어업은 1970年代부터 扎实的 成長을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체가능면적의 10%도 개발되지 못하였으며 技術水準이 낮고 資本不足과 水産物가격의 심각한 기복으로 만족할 만한 成長을 하지 못하고 있다. 急増하는 水産物需要에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增·養殖漁業의 技術發展과 漁場擴大를 위한 과감한 投資가 要請된다.